

육호수(대학원·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시인 인터뷰

“윤동주가 그랬어요. 천명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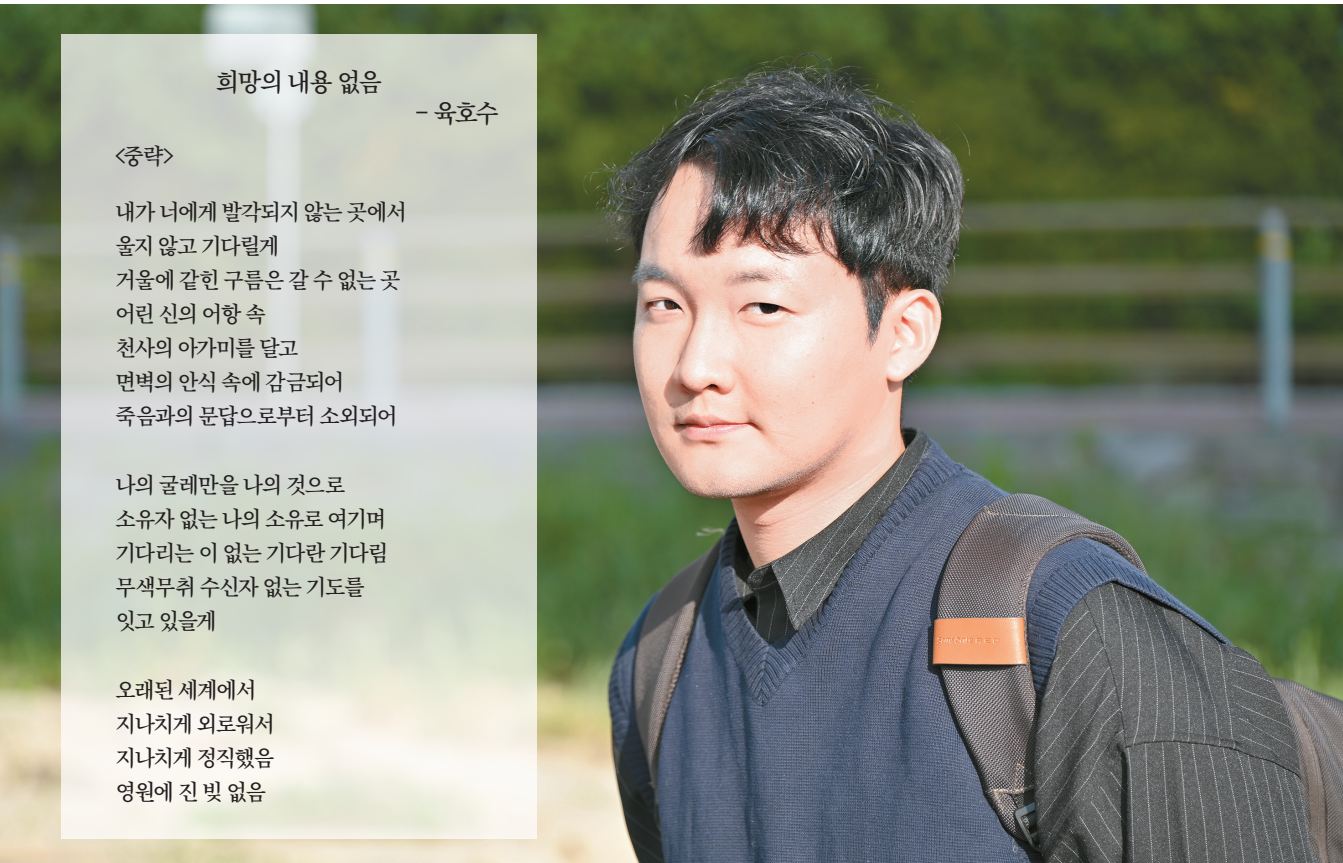
“제가 쓰는 건 형편 없는 시입니다.” 육호수(대학원·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시인은 본인의 시가 교과서에서 읽어온 시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것이 아닐까.

육호수 시인의 첫 번째 시집 첫 장엔 ‘새를 만난 적 없는 새에게’라고 적혀있다. 미술관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된다. 시도 그렇다. 어떤 시가 그저 글씨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하나의 삶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아닌 어떤 순간들을 위해 시를 쓰는 듯 하다. 육호수 시인은 25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고, 2018년에 첫 번째 시집 《나는 오늘 혼자 바다에 갈 수 있어요》를 발표했다. 올해 세계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 부문에도 당선돼 시인이자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쓰고 싶은 게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육호수 시인은 대학생 때까지 그저 학교 가기 싫은 학생이었다. 전공 공부는 적성에 맞지 않았고 자퇴 고민도 수도 없이 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시가 가진 특별함은 잘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삶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만큼 육호수 시인은 시인이기 이전에 열렬한 독자다. 그는 한 권의 좋은 시집을 읽으면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만큼 뿌듯하다고 한다. “저는 저로서 살 수밖에 없지만 시를 읽으면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를 많이 읽고 나서야 그는 시를 쓰고 싶었다.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 마음엔 큰 차이가 있다. 시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쓰고 싶은 것도 많았다. 지금의 육호수 시인은 쓰고 싶은 게 없다. “예전엔 어떤 시를 쓰고 싶은지, 어떤 시인처럼 되고 싶은지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 끝과 시의 끝이 같으면 됩니다. ‘어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시를 쓰기 전에 세계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그런 세상만 보이고 그런 글만 써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에게 시를 쓰는 것은 초고속 카메라로 미



육호수 시인은 “시를 쓰는 건 건물을 짓고 그곳에 살다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적인 세계를 해상도와 프레임 높게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한 포착이 그에게 ‘시’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육호수 시인은 지금이 더 좋다. “악기의 속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쓰고 싶은 말이 많으면 언어에 시가 깃들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할 말이 없는 지금이야 그는 좋은 악기가 돼간다.

육호수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이란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건물을 짓고 테이블도 배치하고 마감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삽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사는 거죠. 그 공간 자체가 시인 것 같아요.” 언어에 시가 깃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건물을 너무 사랑해 계속 사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다.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시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의 자리를 비워 놓고자 하죠. 시인이 지은 그 공간에서 스스

로 만지고 잡고 놓고 자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예요.”

모든 것로부터 낯선 시인

시인의 시선은 특별하다. 육호수 시인의 시선은 더욱 특별하다. 그가 등단하게 된 대산대학문학상의 심사에선 그를 “사물이 가진 뉘앙스를 건져내는 데 탁월한 감각이 있고 언어를 다루는 자신만의 단련법을 익히기 위한 고민의 흔적과 훈련의 시간이 엿보인다”라 평했다. 흔히 말하는 ‘낯설게 보기’가 아닌 ‘낯설게 되기’를 통해 그만의 시선을 구축했다. 그는 낯설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설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로부터 낯설어져야 하고 낯선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로부터 낯선 자가 돼야 사물이 시 안에 들어옵니다.” 낯선 자가 돼 사물을 감각하고 난 뒤에야 문장들이 생긴다. 그런 문장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들이 서로 달

라붙게 둔다. 그렇게 문장들이 시가 된다.

“누구나 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를 쓰는 일이 많은 돈을 가져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육호수 시인은 정규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도, 과외 선생을 하기도, 학원 강사를 하기도, 대학원 연구 보조를 하기도 하며 한 달 중 20일 동안 쓰리잡, 포잡을 뛰면서 돈을 번다. 시인이 아닌 생활인 육호수가 시인인 육호수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덕분에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온전히 시인일 수 있다. “시를 쓰기 위해선 시인으로서의 시간이 이어져야 합니다. 문장이 나오려면 6시간, 10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써질 것 같으면 출근해야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인이 아닌 육호수에게 노동은 돈이 아닌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에게 시인으로서의 목표는 없다. 단지 시

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다.

현대 사회에서 시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한다. 시를 읽는 사람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육호수 시인은 시는 사라지지도 그 힘이 약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시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힘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진 거죠.” 예전의 ‘시’가 많은 갈래로 갈라져 지금의 시는 파급력이 약해졌지만 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기, 음악, 드라마, 사진 등 어디에든 시가 있다. 시가 어디에나 깃들 듯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는 누구나 편하게 시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으면 그게 시죠. 제가 코인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도 노래이듯이 말이예요.” 육호수 시인은 젊은 세대에게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는 시가 아픔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면 조심스레 시를 권하기도 했다.

교과서와는 다른 시와 시인

교과서에서 시를 배울 때 학생들은 작품과 함께 시인의 삶과 사상, 시인이 그 당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배운다. 하지만 육호수 시인은 큰 시각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미래가 어떨지, 시대가 어떨지 하기보단 미시적인 부분들을 선명하게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는 지금 눈 앞에 일어나는 일들과 작은 것들을 예민하게 감각한다. “제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 어떤 시를 쓰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감각한 것들이 시를 통해 드러나고 평생에 걸쳐 작품을 만든다면 그 후에 제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고, 제 시는 어땠고, 또 저는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시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시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시인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실 때가 있냐는 질문에 육호수 시인은 답한다.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천명이라고.”

글 | 김동우 기자 good@
사진 | 강동우 기자 ellipse@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국내 및 국제 표준의 (1) 정책 및 제도, (2) 무역기술장벽, (3) 표준제정, (4) 적합성평가 등의 분야에 전문가 교육을 위한

융합기술시스템공학
신입생 모집

우리가 주도하는 표준화와 국제표준 융합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기술표준 전문인력양성사업
융합성평가기능 전문인력양성사업
BrainKorea21 융합표준전문인력 교육연구단

모집분야

일반대학원(세종캠퍼스) 석사과정·박사과정

참여학과

가속기학과/기업경영학과/생명정보공학과/식품생명공학과/
신소재화학학과/응용물리학과/응용수학과/응용통계학과/
전자·정보공학과/제어계측공학과/컴퓨터정보학과/환경공학과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신입학 전형	원서접수	2022. 10. 04.(화) 오전 10:00~ 10월 17일(월) 오후 05:00까지	100% 인터넷 접수 [전형료 85,000원 (인터넷접수 대행 수수료 포함) 공통]
	제출서류 접수	2022. 10. 04.(화) 오전 10:00~ 10. 18.(화) 오후 05:00까지	출력한 입학지원서, 제출서류목록과해당 제출서류 일체
	전형일시 (구술 시험)	2022. 11. 19.(토) 오전 09:00부터 ※ 단,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11월 18일(금) 예정	2022. 11. 17.(목)에 대학원 홈페이지 “입학/구술시험안내” 에서 구술시험장소 확인
	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오전 10:00(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입학/합격자 조회” 에서 확인

입학설명회

오프라인 2022. 10. 6.(목) 18:00~19:00
석원경상관 325호
온라인 YouTube live로 진행합니다.
▶ ‘융합기술시스템공학’을 검색하세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공학석·박사

학과명

융합기술시스템공학 협동과정

① 표준공학 전공 ② 시험인증 전공

특전

- ① 석사과정 Full-time 수혜학생에게 월 100만원 이상 인건비 지급
- ② 우수학생에 대해 해외연수 등의 혜택 및 기회제공
- ③ 지도교수 추천 Full-time 석·박사과정 BK21 장학금 지원
- ④ 단, 상기 특전은 4대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문의사항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석원경상관 209호
☎ 044-860-1568

홈페이지

http://stdexperts.korea.ac.kr/